구라보 니트과 - 중국에서 제품 일관 생산 체제 검토

구라보의 니트과는 2005년기에 새로 개발된 상품의 소재로서, 이 소재를 더욱 충실하게 하여 자가 설비를 이용한 중량(中量) 생산품을 확대함과 동시에 백화점이나 전문점 존에서 여성 분야를 개척하려하고 있다.

니트과는 2004년도 3월기의 수입이 2003년도의 동기와 비교하여 줄었지만 적자 폭도 줄었다. 적자가 줄은 데는 2003년도 동기와 비교하여 판매량이 20% 증가한 '미방(美紡)' 시리즈를 비롯하여 나노 텍스나 흡수 속건, UV 케어 가공과 같은 부가 가치 상품이 시장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 이바지하였다.

2005년도기에는 소재면이나 여성의 중량 생활품을 확대함으로써 수입을 개선하였다. OEM 중심의 제품 사업은 현재 판매고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기중에 30%로 올릴 예정이다. 해외 생산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일관 공장에서 스포츠 의류를 중심으로 약 50만매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봉제 사업을 강화하여 현재 10만매 생산하고 있는데, 2005년기중에는 20만매로 늘린다. 최종적으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을 같은 수준으로 만들 생각이다.

중국에 있는 3개의 협력 공장은, 원단이나 실을 공급받고 후가공으로 대응해 주면서 나이티나 골프용 폴로셔츠 등을 생산하고, 보다 더 효율화하기 위하여 방적으로부터 현지에서 일관 생산도 할 수 있게 검토하고 있다. 봉제 자회사인 구라보 어패럴과 제품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구라보 텍스타일과는 긴밀하게 제휴하면서 소재 개발에서도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려 노력하

고 있다. ♣